

?

물음표

!

느낌표

< >

홑화살괄호

:

쌍점

“ ”

큰따옴표

{ }

중괄호

# 문장 부호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

홑낫표

,

쉼표

‘ ’

작은따옴표

~

물결표

/

빗금

[ ]

대괄호





# 문장 부호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목 차

1. 왜 개정하게 되었나요? .....	4
2. 새 규정은 모두 몇 항목인가요? .....	5
3. 어떤 항목들이 없어졌나요? .....	5
4. 새 규정에는 세로쓰기 부호가 보이지 않네요? .....	6
5. 종전 규정을 따르면 틀리는 경우가 있나요? .....	7
6. 자판에 없는 부호들은 다른 걸로 대신 써도 되나요? .....	8
7. 부호의 이름은 바뀐 게 없나요? .....	9
8.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	10
9.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11
10. 부호별 주요 용법 .....	12
11. 「문장 부호」 전문 .....	16
12. 문장 부호 일람표 .....	36

## 왜 개정하게 되었나요?

- 2014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장 부호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종전 「문장 부호」는 1988년 「한글 맞춤법」 부록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번에 26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 1988년 당시의 「문장 부호」는 원고지 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 환경에 맞추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부호와 용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 새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새 규정은 모두 몇 항목인가요?

- 종전 규정은 24종(가로쓰기 20종, 세로쓰기 4종) 66항목인데, 새 규정은 가로쓰기만 24종 94항목(신설 47항목, 삭제 19항목)입니다. 그만큼 문장 부호를 간결하게 정리하면서도 개별 부호의 용법은 상세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어떤 항목들이 없어졌나요?

- 새 규정에서 문장 부호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수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전문 분야의 용법들을 새 규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는 그동안 써 오던 대로 부호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규정에서 제외된 용법	예
분수 표시의 ‘빚금’	3/4분기 경제 전망
수의 자릿점 표시의 ‘쉼표’	사업 예산: 12,000,000원
단어 구성 성분 표시의 ‘붙임표’	명사형 어미 ‘-ㅁ/-음, -기’
어떤 말이 들어갈 자리 표시의 ‘물결표’	-가(家): 음악~, 미술~

## 새 규정에는 세로쓰기 부호가 보이지 않네요?

- 최근에는 세로쓰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규정에서는 가로쓰기에 쓰는 부호만 다루고, 세로쓰기 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은 제외하였습니다. 단, ‘낫표’는 가로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용법을 수정하여 새 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종전 규정		새 규정
가로쓰기 부호	세로쓰기 부호	가로쓰기 부호
온점(.)	고리점(。)	마침표(.)
반점(,)	모점(。)	쉼표(,)
큰따옴표(“ ”)	겹낫표(『 』)	큰따옴표(“ ”), 겹낫표(『 』)
작은따옴표(‘ ’)	홀낫표(「 」)	작은따옴표(‘ ’), 홑낫표(「 」)





## 종전 규정을 따르면 틀리는 경우가 있나요?

- 새 「문장 부호」는 무엇보다 문장 부호를 혼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새 규정에서는 그동안 써 오던 대로 문장 부호를 쓰더라도 틀리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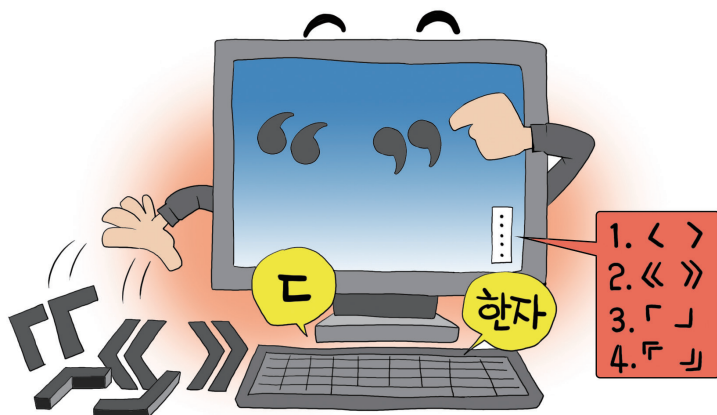
종전 규정	새 규정
12월 10일~12월 30일 (O) 12월 10일-12월 30일 (X)	12월 10일~12월 30일 (원칙) 12월 10일-12월 30일 (허용)
3·1 운동 (O) 3.1 운동 (X)	3.1 운동 (원칙) 3·1 운동 (허용)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다. (O)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다. (X)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다. (원칙)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다. (허용)



## 자판에 없는 부호들은 다른 걸로 대신 써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가운뎃점(·)’이나 ‘낫표(「, 『, 』)’처럼 입력이 불편한 부호들은 입력이 간편한 다른 부호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원칙	허용
네 말도 웁긴 하지만.....	네 말도 웁긴 하지만 ..... 네 말도 웁긴 하지만... 네 말도 웁긴 하지만....
금·은·동메달	금, 은, 동메달
베르디가 작곡한 「죽배의 노래」 베르디가 작곡한 <죽배의 노래>	베르디가 작곡한 ‘죽배의 노래’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





## 부호의 이름은 바뀐 게 없나요?

- 있습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규범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호	종전 규정	새 규정
.	온점	마침표(원칙) 온점(허용)
,	반점	쉼표(원칙) 반점(허용)
< >		홑화살괄호
« »		겹화살괄호



##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 새 규정에서는 문장 부호의 띄어쓰기를 조항과 용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용법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항을 두어 어떻게 띄어 써야 하는지 규정하였습니다.

부호	용법	띄어쓰기
쌍점	때: 2014년 12월 5일 2:0으로 이기다	앞말에는 붙이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앞뒤를 붙여 쓴다.
빗금	남반구/북반구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앞뒤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앞뒤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줄표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 이다	앞뒤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물결표	9월 15일~9월 25일	앞뒤를 붙여 쓴다.
줄임표	어디 나하고 한번……. 글의 일부를 통째로 생략할 때	앞말에 붙여 쓴다. 앞뒤를 띄어 쓴다.



## 주요 변경 사항 정리

주요 변경 사항	종전 규정	설명
가로쓰기로 통합(24종)	세로쓰기 부호 별도 규정 (가로쓰기 20종, 세로쓰기 4종)	세로쓰기 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ㄱ, ㄴ)’는 가로쓰기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화살괄호(< >, << >>)’를 추가.
문장 부호 명칭 정리	‘.’는 ‘온점’ ‘,’는 ‘반점’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부호 ‘< >, << >>’를 각각 ‘홀화살괄호,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부호 선택의 폭 확대	줄임표는 ‘……’만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가운뎃점, 낫표, 화살괄호 사용 불편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낫표(ㄱ, ㄴ)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함.
항목 수 증가 (66개→94개)	항목 수 66개	소괄호 관련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항목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28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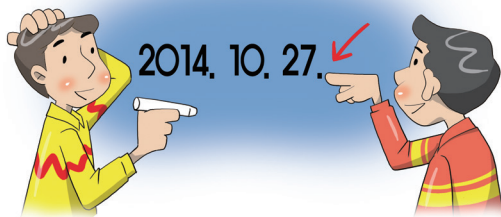
## 부호별 주요 용법

### ■ 마침표(.)와 물음표(?)와 느낌표(!)

- 새 규정에서는 그동안 마침표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란이 많았던 경우에 대해 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ㅁ/-음’ 또는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 서술성을 가진 명사 또는 ‘~할 것’ 형식으로 끝나는 문장, 말이나 생각을 직접 인용한 문장 등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2014년 10월 27일’

은 마침표를 활용하여  
‘2014. 10.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여 ‘2014. 10. 27’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글자로 치면 ‘일’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 월, 일’을 나타내는 각각의 마침표는 모두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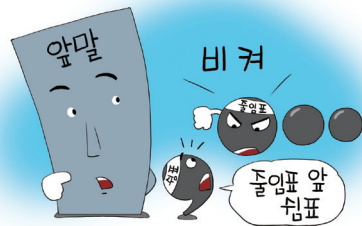
- 제목이나 표어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때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목이나 표어가 둘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의도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용법	예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 명사로 끝나는 문장,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함.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함(○)/노력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운동하기(○)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개최(○) 3학년은 6시까지 모두 강당으로 모일 것(○)/모일 것(○)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떠나자(○)”라고 말했다.

용법	예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마침표를 모두 씀.	2014. 10. 27.(O) 2014. 10. 27(X)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는 마침표 또는 가운뎃점을 씀.	3. 1 운동(O) 3·1 운동(O)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물음표를 씀.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다.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호는 우곡이다.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쓰는 것을 허용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표어) 역사란 무엇인가 (제목) 기억해요, 아픈 역사. 잊지 마요, 보훈 정신. (표어) 사람아, 아, 사람아! (제목)

## ■ 쉼표(.)와 가운뎃점(·)

-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는 쉼표나 줄표를 쓸 수 있습니다. 단,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는 줄표를 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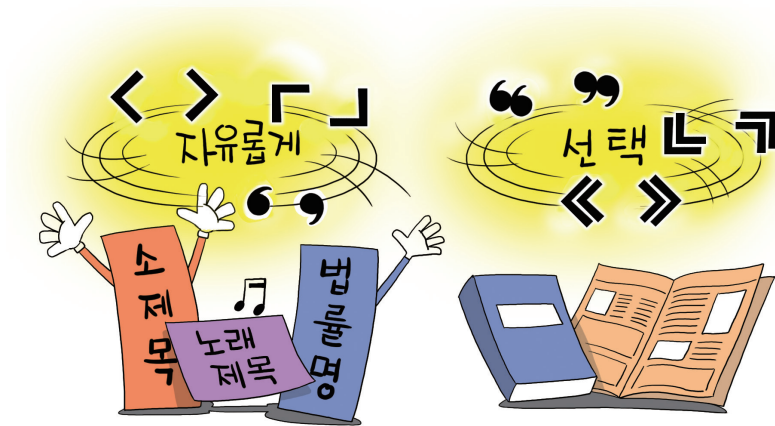
-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는 줄임표를 쓰는데, 이때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이때는 문장을 끝맺는 것이 아니므로 줄임표 뒤에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용법	예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는 쉼표 또는 줄표를 씀.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짧어 읽는 곳을 나타내거나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쉼표를 씀.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짓은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음.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O)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X)
짜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나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는 가운뎃점 또는 쉼표를 씀.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O) /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O) 상·중·하위권(O) / 상, 중, 하위권(O)

## ■ 낫표(「 」, 『 』)와 화살괄호(< >, ≪ ≫)와 따옴표(‘ ’, “ ”)

- 문장 안에서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 겹낫표나 겹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큰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용법	예
소제목, 노래 제목, 법률명 등에는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또는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음.	「한글 맞춤법」은 2014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책 제목, 신문 이름 등에는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또는 큰따옴표를 쓸 수 있음.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박경리의 “토지”는 대하소설이다.



## ■ 줄표(一)와 붙임표(-)와 물결표(~)와 줄임표(……)

-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는 물결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때 물결표나 붙임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씁니다.
- 종전 규정에서는 줄임표는 가운데에 여섯 점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전화기 등에서 입력할 때는 불편함이 많아 현실 언어생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언어 현실에 맞게 줄임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운데 여섯 점뿐만 아니라 가운데 세 점, 아래 여섯 점, 아래 세 점을 찍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점을 아래에 찍더라도 마침표는 생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법	예
부제의 앞뒤에는 줄표를 쓰되,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음.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나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는 붙임표를 씀.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원-달려 환율
기간이나 범위를 나타낼 때는 물결표 또는 붙임표를 씀.	9월 15일~9월 25일(○) 9월 15일-9월 25일(○)
줄임표는 가운데 여섯 점이 원칙이나, 가운데 세 점, 아래 여섯 점, 아래 세 점을 찍을 수도 있음.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셨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셨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셨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셨다.(○)





## 「문장 부호」 전문(2015. 1. 1. 시행)

###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마침표(.)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예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예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예 집으로 돌아갑시다.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예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예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예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 예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 예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압록강은 흐른다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예 1919. 3. 1.

예 10. 1.~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예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

예 3 · 1 운동

예 8 · 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예 가. 인명

예 ㄱ. 머리말

예 1. 서론

예 1. 연구 목적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 2. 물음표(?)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예) 점심 먹었어?

예)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예) 지금?

예) 뭐라고?

예) 네?

[붙임 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예)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예)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나.

예)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

예)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예)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예)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예)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예)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 3. 느낌표(!)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예)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예) 어머!

[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어, 벌써 끝났네.

예) 날씨가 참 좋군.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예) 이야, 정말 재밌다!

예) 지금 즉시 대답해!

예) 앞만 보고 달리자!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예 이게 누구야!

예 내가 왜 나빠!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예 네!

예 네, 선생님!

예 흥부야!

예 언니!

#### 4. 쉼표( , )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예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예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

다만, (가)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예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예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5, 6세기

예 6, 7, 8개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예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예 네, 지금 가겠습니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예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예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예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예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예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예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예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예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이리 오세요, 어머님.

예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예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예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예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예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예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 로 양보할 수가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예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예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붙임] ‘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예 민수 · 영희, 선미 · 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예 지금의 경상남도 ·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전라북도,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한(韓) ·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 · 분석

예 빨강 · 초록 ·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예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예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예 상 · 중 · 하위권

예 금 · 은 · 동메달

예 통권 제54 · 55 · 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예 상, 중, 하위권

예 금, 은, 동메달

예 통권 제54, 55, 56호

## 6. 쌍점( : )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예)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예)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예) 두시연해 6:15(두시연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 가 쓰일 자리에 쓴다.

예) 65:60(65 대 60)

예)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 7. 빗금( / )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먹이다/먹히다

예) 남반구/북반구

예)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예) (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예) 100미터/초

예)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뀔 때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예)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  
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예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예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 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 10. 소괄호( ( ) )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예)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예) 2014. 12. 19.(금)

예)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예)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선생(님)’ 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예)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예)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예)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  
(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의 수도는 ( )이다.

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예)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예)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 11.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  
  가                    }

예)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  
  국민                    }  
  주권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예, 로, 까지} 갔어요.

## 12. 대괄호([ ])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  
  [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예)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예 낱말[單語]

예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예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예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  
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 임.]

###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예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예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예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예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예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15. 줄표(—)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16. 붙임표(-)

(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예)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예)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예) 원-달러 환율

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 17.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9월 15일~9월 25일

예) 김정희(1786~1856)

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예) 9월 15일-9월 25일

예) 김정희(1786-1856)

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 18. 드러냄표(・)와 밑줄( )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을 나타낼 때 쓴다.

예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예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예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 20. 빠짐표(口)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빨리 말해!”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예)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예)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예)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예)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 문장 부호 일람표

부호	이름	용법
.	마침표	○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나타낼 때 쓴다.
?	물음표	○ 의문문이나 물음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	느낌표	○ 감탄문이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	쉼표	○ 어구를 나열하거나 문장의 연결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 문장에서 끊어 읽을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가운뎃점	○ 둘 이상의 어구를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	쌍점	○ 표제나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빗금	○ 대비되는 둘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 ”	큰따옴표	○ 대화를 표시하거나 직접 인용한 문장임을 나타낼 때 쓴다.
‘ ’	작은따옴표	○ 마음속으로 한 말이거나 인용문 속의 인용문임을 나타낼 때 쓴다. ○ 문장 내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	소괄호	○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낼 때 쓴다.
{ }	중괄호	○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들을 묶어서 보일 때 쓴다.
[ ]	대괄호	○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 원문에 대한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 』	겹낫표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	훅낫표	○ 소재목,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	훅화살괄호	○ 소재목,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줄표	○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를 나타낼 때 쓴다. ○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를 나타낼 때 쓴다.
-	불임표	○ 차례대로 이어지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	물결표	○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	드러냄표	○ 문장 내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밑줄	○ 문장 내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	숨김표	○ 금기어나 비속어 또는 비밀임을 나타낼 때 쓴다.
□	빠짐표	○ 글자가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줄임표	○ 할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국어 정책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국어 가꾸기’, 다양한 국어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언어 정보를 체계화하는 ‘국어 세우기’,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시대의 언어 소통을 증진하는 ‘국어 넓히기’를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이 사회의 통합과 소통에 이바지하는 쉽고 바른 언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받들어 모든 국민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쉬우면서도 품위를 갖춘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 ‘국어 정보가 한가득’ 국립국어원 정보 서비스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 이동 통신기 전용 누리집 [m.korean.go.kr](http://m.korean.go.kr)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http://edu.korean.go.kr>
- 언어 정보 나눔터 <http://ithub.korean.go.kr>
- 공공 언어 지원 <http://www.korean.go.kr/publang>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http://malteo.korean.go.kr>
- 한국어 교육 자격 심사 <http://kteacher.korean.go.kr>

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가나다 전화) 1599-9979

– 근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누리소통망 국어 상담

- 트위터 <http://twitter.com/urimal365>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rimal365>
- 카카오톡 @우리말365(아이디 검색창에서 입력)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http://areumkorean.or.kr>

「쉽표, 마침표」(온라인 소식지) <http://www.urimal365.kr>

국어문화학교 02-2669-9729, 9752, 9662



# 문장 부호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기획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담당 연구원	이대성
발행인	민현식
발행일	2014년 12월 29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a href="http://www.korean.go.kr">www.korean.go.kr</a>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우)157-857
인쇄	크리홍보 주식회사

---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2014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문화융성

으로 가는 첫걸음, 국어 사랑



국립국어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